

# 이별 그리고 ....

누가복음 24:44-53

2021 년 5 월 16 일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로 10 시 회중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10 시에, 조영준 목사님께서 말씀을 나누실 예정입니다. 조 목사님은, 오래 전에, 커네티컷 지방회 감리사 사역을 하셨고, 그 후에, 서울 정동 감리 교회에서 목회하시고 은퇴하셨습니다. 지금 포킵시에서 살고 계시면서, 여전히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몇년 전에, 웨어필드 그레이스 교회 청지기 주일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지요.

김 종성 목사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김종성 목사님께서 초대 목회자로 섬기셨던, 뉴 헤이븐 한인 연합 감리교회 섬기실 때, 조 목사님께서 감리사님으로 사역하셨습니다.

사실, 웨어필드 그레이스 교회에 부임하시는 최 영 목사님께서 지금 섬기고 계신, 웨스트빌 연합 감리교회는, 원래, 뉴 헤이븐 연합 감리교회에서 시작한 교회입니다.

제가 카톡으로 다시 알려드리겠지만, 잊지마세요, 다음 주일은 오전 10 시에, 10 시 회중과 같이 성령 강림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이런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얼마나 좋았을까? 목사님, 저도 그 사람들처럼 1 세기에 살았으면, 예수님 믿는 데 문제가 하나도 없을 것 같네요. 예수님과 같이 생활하면서, 예수님 말씀 직접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들을 직접 보았으니, 예수님 믿고 따르는 데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믿기가 힘들어요. 우리는 보지 않고 믿어야 하니 말입니다. 예수님만 우리 눈에 보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려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 일이 지난 날에,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같이 계셨던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려는, “51 예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면서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리워 가시자 52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벅찬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 53 계속 성전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찬양하고 경배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기쁨이 넘쳐났다고 하였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지 않게 되었으니, 슬퍼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론 부터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승천은 1 세기 제자들에게, 그리고 21 세기 우리 믿는 자들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두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곁으로 돌아가셨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대단한 사건입니다. 승천은, 하나님 구원의 역사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하여, 세상의 악과 죄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이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기 위해서 하늘로 돌아가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받으실 합당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기뻐했습니다. 자기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죽음에서 다시 사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인류, 세상을 구원하시는 사역에 동참하셨던 예수님이, 이제 본향으로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영광 받으시고, 지상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늘로 돌아가셨으니, 일세기의 제자들이 가졌던 기쁨에 동참하여야 합니다.

승천은 예수님의 승리이고 영광이라, 우리가 기뻐할 이유가 되지만,

또 다른 이유는, 예수님의 승천은, 획기적으로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게 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탄의 복된 소식입니다. 이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구원의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 하나님 아버지 곁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성육신하신 육신성하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승천 사건은 육신성 사건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 가운데 사역하시다가, 이제 육신을 입은 예수님께서, 승천,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 우편으로 가셨습니다.

상상 해 보세요. 승천하실 때에, 인간의 몸을 벗어던지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셨습시다만, 그 하나님의 아들은, 육신을 가진 인간 예수님이십니다. 이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한 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삼위 일체 교리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구세주 예수님은 한 분이시라는 가르침이십니다. 승천 사건은, 하나님 아버지와 인간 예수님과 하나가 되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인간 예수님과 하나가 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거꾸로 말하면, 인간 예수님과 하나 됨이 없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승천 사건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하나님 홀로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인간 예수님과 하나이신 하나님이심을 세상에 알리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승천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대단한 사건입니다.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우리의 눈을 뜨이게 하는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사건입니다.

요한 복음 14 장 12 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9 조금만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 것이기 때문이다.

20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는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21 내 계명을 간직하여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을 것이며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세례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 복음에 보며는, 예수님 탄생 소식을 전하면서, 가브리엘 천사가 말하기를, “22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23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이라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다.” (마태 1:22-23)

그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는 하나님이 명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 아들,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숨쉬고, 일하시고,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여기에,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신 성령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믿는 데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제자들이 부러워요.” 예수님 승천하신 소식을 들은 우리들은, 이제부터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바로 여기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만나는 모든 경험과 사건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펼쳐집니다. 제가 조씨 가정에 태어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제가 제

아내와 결혼 한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민와서 사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각자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웨어필드 그레이스에서 함께 만나, 예배 생활하고, 신앙의 여정을 가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이십니다.

지난 주간에 패트리샤 로젤이라는 분이 하늘 나라를 가셨습니다. 그 분이 좋아하는 시편 23 편에,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선한 목자 하나님 찬송하셨습니다. 이 주전에 만나 뵈었을 때, “목사님, 잔잔한 물가로 가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잊지마세요. 저도 곧, 잔잔한 물가로 갈 것이니까, 너무 외로와하지 마세요.” 인사하셨습니다.

먼저 돌아가신 우리들의 가족들과 신앙의 선배들을, 이 세상에서의 삶의 소풍이 끝난 후에, 또 만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지금도, 내일도, 죽음 가운데에서도, 그리고 죽음 후의 새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최 영 목사님을 지난 주 수요일에 만났습니다. 한 시간 동안 만날 예정이었는데, 두시간을 넘게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얼마나 제가 기쁜 지 모릅니다. 성실하고 착실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젊고.. 저보다는 조금 못 생겼지만... 농담입니다. 미남입니다. 웨어필드 그레이스 교회가 복을 많이 받은 줄 분명히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 목사님, 만남 시작하자 마자, 교회 뒤에 있는, 야외 테이블에 앉으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희 아버님 어머님 한테 지난 주에 들었습니다. 목사님 아버님께서, 제게 유아 세례를 주셨다고 하더군요.” 저의 작은 매부가, 최 목사님 결혼 식 주례를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이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줄 믿습니다. 웨어필드 교회를 지난 65 년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목회자를 보내시어, 새로운 사역으로, 새로운 믿음의 여정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새 목회지로 가서, 새로운 주님의 제자들을 만나고, 그 분들과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게 주신 귀한 섬김의 기회로 받습니다.

언제 은퇴하게 될 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은퇴 전, 섬기게 될 마지막 교회라고 여기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주시는 시간과 기회를 허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흥분하고 있습니다. 기쁩니다.

함께 기뻐해 주시고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줄입니다.

승천하심으로, 제자들과 헤어지셨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의 이별은, 슬픈 이별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이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되는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되어 살아가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제자들이 찬양하고 또 승천하신 예수님을 경배하였듯이, 우리도 어디에서 살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 우리들을 위하여 구원의 사역을 마치시고, 모든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 찬양하고 경배를 드립니다.

승천 하셔서, 몸 하나로 사역하셨던 주님께서, 이제 성령으로, 언제나 세상의 모든 이들과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에서 함께 하시고 함께 일하심을 알게 되어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우리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나라.” (새 438)

아멘, 아멘.